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글로벌 4PL 시장, '27년까지 연평균 5.2% 성장 예상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머스크, 업계 최초로 디지털 통관 플랫폼 출시
2. 로테르담항 푸드허브(Food Hub) 계획 발표
3. 미국 LBCT, 맥쿼리그룹에 매각 추진 중



공지사항

1.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모
2.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명사 스피치

“해양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 협력하여 마리나 및 해양관광산업 관련 규제개선,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2019. 4. 30. / 마리나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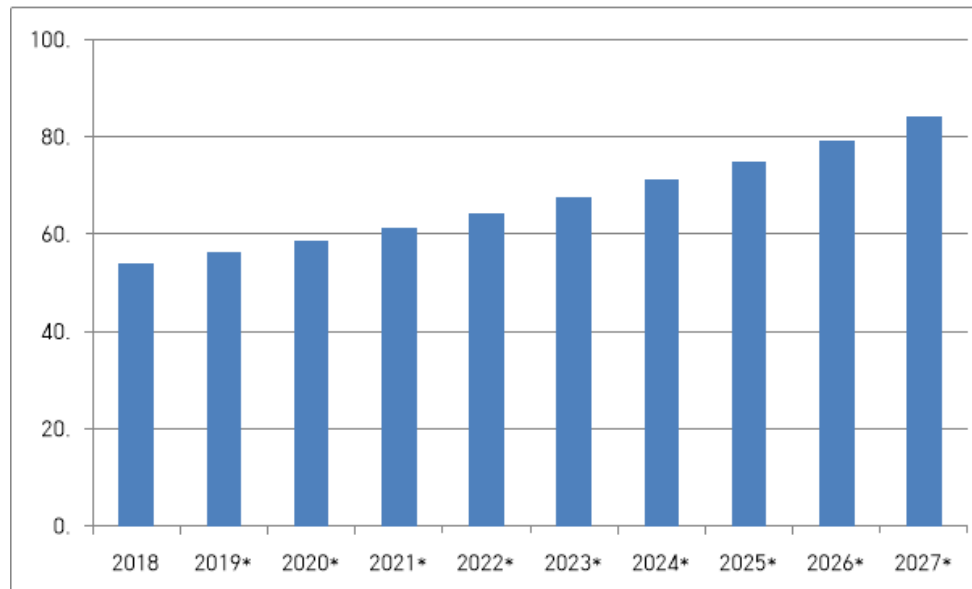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글로벌 4PL 시장, '27년까지 연평균 5.2% 성장 예상

4PL 물류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자료: www.statista.com

- 2018년 글로벌 4PL 물류시장 규모는 5,465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7년까지 8,41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 상거래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포괄적인 공급사슬관리를 위해 여러 주체가 경쟁 또는 협조를 통해 보다 나은 물류 솔루션을 채택하면서 예측기간 동안 4PL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4PL은 3PL뿐만 아니라 IT와 컨설팅 분야 등을 포함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로, 앤더슨 컨설팅사는 전체적인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사슬통합자로 정의함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머스크, 업계 최초로 디지털 통관 플랫폼 출시

- 머스크 사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스페인의 총 7개국에서 디지털 통관 관리 플랫폼을 출시함
 - 독일에서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유럽 7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9년 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출시 계획 중
- 디지털 통관 플랫폼은 화주들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수출입 통관 비용에 대해 머스크가 직접 화주들에게 견적을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해 시간을 단축함
 - 고객을 위한 수출입 신고를 적절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해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임
 - 통관을 위한 중개업체 수를 기본 3~4 곳에서 1곳으로 줄여 통관 절차를 위한 서류 작업 시간을 줄여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 디지털 통관 플랫폼의 출시는 해운 산업에서 디지털 리더로서 머스크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예상됨
 - 머스크 사는 이미 즉각적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TradeLens와 함께 블록체인의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음
 - 최근에는 Hapag-Lloyd, MSC, ONE 등과 함께 디지털 컨테이너 배송 협회(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를 설립해 디지털 리더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있음
- 디지털 통관 플랫폼으로 인해 화물 운송에서 포워더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중개인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해당 역할을 하던 포워더들의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 예상함
 - 머스크의 CEO는 TPM 컨퍼런스에서 컨테이너 사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포워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워더는 경쟁사가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라고 발언
 - 하지만 중소형 화주를 중심으로 포워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을 예약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supplychaindive.com, 2019.4.29. / www.maersk.com, 2019.4.29.

김성기 전문연구원

051-797-4688, skkim@kmi.re.kr

로테르담항 푸드허브(Food Hub) 계획 발표

로테르담항 푸드허브(Food Hub) 입지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로테르담의 푸드허브 계획을 발표했으며 서유럽 최대의 농업·원예·수산물 취급 항만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 인구증가와 경제수준 향상으로 2017년 에그로푸드(agrofood) 시장이 1,0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함
 -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큰 세계 최대 규모이며 연간 수출량은 1,600만톤임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로테르담항의 푸드허브 설립을 통해 에그로푸드 물량을 유치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임
- 푸드허브 입지는 마스블락테(Maasvlakte) 터미널 입구에 위치한 칼란드카날(Calandkannaal)이며 에그로푸드 기업들에게 최적의 시설을 제공할 계획임
 - 부지 규모는 60헥타르이며 마스블락테의 심해 터미널 및 타 정박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매우 높음
 - 그 외에도 바렌드레흐트(Barendrecht), 리데르케르크(Ridderkerk), 웨스트랜드(Westland)와 같은 그린포트(Greenport)와도 인접해 있음
 - 신선화물(perishable goods)은 빠른 처리속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두에 인접하게 창고를 배치해 냉장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할 예정임
- 푸드허브는 로테르담에 위치한 기존 시설들과 함께 에그로푸드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 마스블락테와 엠하펜(Eemhaven)에는 이미 쿨포트(Cool Port)와 대형 저온보관시설(cold storage warehouse) 등이 마련되어 있음
-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2020년 개장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 60헥타르의 부지 중 45헥타르를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약 35헥타르 규모의 부지 할당이 논의되고 있음



- 토양 조사 등을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와 각종 시설 설치 6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7월부터 본격적인 부지개발이 시작될 예정임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9.5.7.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미국 LBCT, 맥쿼리그룹에 매각 추진 중

- COSCO그룹의 OOCL(Orient Overseas International Limited)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롱비치 컨테이너터미널(LBCT·Long Beach Container Terminal) 매각이 추진되고 있음
 - LBCT는 맥쿼리그룹의 Macquaire Infrastructure Partners(MIP)를 중심으로 한 컨소엄에서 인수할 예정이며, 지분 100%에 해당하는 17억 8천만 달러로 거래될 것으로 보임
 - LBCT 매각은 2018년 7월 중국의 COSCO가 홍콩 컨테이너 선사인 OOCL을 인수함에 따라 논의되었으며, LBCT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OOCL 인수 승인이 이루어짐
 - 이번 거래는 COSCO Shipping Holdings의 자회사인 Faulkner Global Holdings Limited와 OOIL, 미국 국토안보부 및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등이 참여한 'National Security Agreement'에 따라 이루어짐
- LBCT는 향후 OOCL이 계속 운영 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OOCL은 과거 30년 동안 LBCT를 미국 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고효율 터미널로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으며, 향후 LBCT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고객(선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성명서에 따르면 OOCL은 약 20년간 LBCT와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하역 서비스 제공 등 터미널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며, MIP는 2022년까지 LBCT 확장을 통해 터미널 규모를 증대 시킬 예정임
- 한편 싱가포르의 PSA는 맥쿼리의 MIP가 소유하고 있던 북미 동부 2개 터미널을 인수하기로 함
 - PSA가 인수할 터미널은 북미 동부에 위치한 캐나다 핏치팩스(Halifax)의 핏치팩스 터미널(Halterm Terminal)과 미국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펜 터미널(Penn Terminal)이며, 미국 및 캐나다 당국의 규제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음
 - 특히 PSA는 핏치팩스항 인수에 캐나다 철도청(Canada National Railway) 및 CMA-CGM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짐
 - 이 같은 터미널 소유권 거래는 맥쿼리 MIP가 북미서안의 LBCT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World Maritime News, Port Technology, Splash 247, 2019.5.7.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공지사항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9년 5월 8일(수) 09:00 ~ 2019년 6월 7일(금) 17:00까지

2. 신청 사업

-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3. 신청대상

-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4. 지원내용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진출사전 지원'과 '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기간: 2019. 5. 8(수) 09:00 ~ 2019. 6. 7(금) 17:00

-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 문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2) 사업제안서 10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참조)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6)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7)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부 (중소물류기업)
- (8)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7. 선정절차 및 방법

- ☐ 1차 서류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6월 17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 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별첨

1.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문
3.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제출서류 양식
4. 해운·물류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출서류 양식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동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차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19.5.14(화) 15:0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 주요 내용

-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공모 관련 사항 설명
- 질의응답

□ 2차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19.5.15(수) 14:00 / (부산) 부산항만공사* 3층 중회의실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 주요 내용

-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공모 관련 사항 설명
- 질의응답

